

기 고



김 동 규
/완도어선안전조업국장

지난 2월 4일 신안군 해상에서 어선 C호(인천선적, 근해통발, 24톤, 승선원 12명)가 항해 중 기관실 침수로 선체가 전복되어, 승선원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수협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실제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인명피해 456명 중 31.4%가 겨울철에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유형은 안전사고(43.4%), 충돌(25.9%), 전복(23.1%) 순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가오는 겨울철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동절기 월 평균 풍랑특보는 9.7회로 비동절기 대비 약 3.1회가 많으며 해수면 온도 역시 평균 13.6℃로 비동절기 대비 5.5℃ 정도 낮아 어선의 안전조업에 취약한 시기이다.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 안전조업활동 지원 나서다

수협중앙회 완도어선안전조업국은 완도군 군외면에 위치한 송·수신소와 대둔산, 도솔봉, 금일도에 중계소를 설치해 전남 남해서부권 출어선의 안전조업지도 및 신속한 구조업무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완도·강진·장흥·해남군 등 4개군에 등록된 약 1만여 척의 선주, 선장 대상 연 150회 이상의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안전조업교육·어업인간담회·어선안전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현장소통,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고, 완도해경, KOMSA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신기·플로터·조타기 작동 상태 점검, 각종 등화 점등 여부, 소화장비 점검

등을 통한 사고예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동절기에는 주요 사고 발생위험요인에 의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안전조업 교육 내용을 추가해 집중교육하고 있다.

추가 내용은 출항 전 기관설비 사전 점검, 과도한 난방기구 사용 자제, 야간조업 지양,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시 기존 15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던 출항 제한이 30톤 미만까지 확대 적용된 사항 등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겨울철 인명피해는 안전사고·충돌·전복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 예방은 “나는 괜찮겠지, 오늘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철저한 안전의식 함양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선장·선원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

다. 더 이상 바다에서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하여 우리 어업인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어업인의 성숙한 해양

안전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어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富)의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을 맞아



정 용 인
/보성소방서장

올해 11월은 76번째 맞는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불조심 강조의 달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화재 발생이 많은 겨울철이 오기 전에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조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겨울철에는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증하는데, 먼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안

전의식 강화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화재 발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이 부주의며, 방심하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참사로 이어진다.

화재 발생 장소를 분석해 보면 주거시설이 약 3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운 겨울철 주거시설에서 보내는 시간과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겨울철 3대 난방기구(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와 화목보일러 등 각종 난방기구 점검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는 화재를 조기 감지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은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평소 소화기 사용법을 잘 배워 두어야 한다.

그리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초기

에 진압하거나 신속 대피가 가능하도록 심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보성소방서에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에 ▲군민 생활 맞춤형 화재안전홍보 ▲겨울철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 ▲안전 취약계층 등 소방안전교육 확대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

리기 공모전 ▲불조심 강조의 달 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리 모두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보성소방서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안전한 겨울나기에 함께 하였으면 한다.

등산 시 산악사고 주의하자



최 원 형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낮에는 선선하고 맑은 하늘로 인해 등산을 가기에 좋은 시기이다.

최근 단풍을 즐기려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이에 대비하지 못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등산을 할 때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해 질병 악화, 지정 등산로 외의 산행으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 등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가을철 안전한 산행을 위해 간단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으로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체력에 맞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요즘 산은 해가 일찍 지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조기 하산과 랜턴, 체온유지를 위해 여벌의 옷을 준비하는게 좋다.

또 등산화와 지팡이 등 안전장비를 옹도에 맞게 사용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음주 산행은 금지해야 한다.

기사제보 E-mail :honamnews@hanmail.net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www.homae.co.kr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광 고 국 (062) 363-0005	정 · 경 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처남도프린테크 (062) 943-0140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

지국안내

총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등.....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쌍 촌.....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능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문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문.....525-8894
두 암.....266-1920
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 정.....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담 양...010-3602-3550
곡 성...010-2632-4504
구례...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3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3610-9153
강 진...010-3775-2369
장 성...010-3610-7824
무 안...010-9271-8517
여 수...010-8587-2288

함 평...010-3095-5842
영 암...010-4604-3742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4644-8383